

# 과거의 거울 통해 미래 점쳐본 한해

2001년 인문·사회서의 흐름을 읽는다



올 한해 인문·사회과학 분야는 '중국' '평전' '미시사'가 분할 통치했다. 《반조류의 중국》(마크 블레처, 전병곤 외, 돌베개), 《허드슨 강변에서 중국사를 이야기하다》(레이 황, 권중달, 푸른역사) 등이 중국의 높아진 위상을 독서계에서도 확인시켜줬다. 중국이 '뜬' 반면 미국은 '졌다'. 《오만한 제국》(하워드 진, 이아정, 당대)을 시작으로 미국의 대외정책을 질타하는 책들이 좀 과장하자면 하루에 한권 꼴로 나왔다.

**잊혀진 역사 복권하려는 움직임 두드러져** 평전의 강세도 두드러졌다. 고리타분한 위인전에서 벗어나 다양한 인물들의 삶이 소개됐다. 난해한 철학자 비트겐슈타인, 진시황, 의병장 신돌석, 마르크스주의자들 등 '복권'의 성격이 짙었다. 역사서 분야에서도 잊혀진 것들, 버려진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여전했다. 《얼굴의 역사》(니콜 아브릴, 강주현, 작가정신) 등 십수권의 '~역사' 류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이런 미시사들이 심심풀이 읽을거리로 전락할 무렵 《나는 왜 역사가가 되었나》(모리스 아클롱 외, 이성엽 외, 에코리브르), 《미시사와 거시사》(위르겐 슐름봄, 백승종 외, 궁리) 등 진술하고 냉철한 이문서들이 나와 미시사의 '신선도'를 보존할 수 있었다.

인문·사회과학의 핵심의제로 떠오른 주제항목들을 보면 우리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기제를 공격하는 책들이 군웅할거했다. 임지현과 강준만이 주도한 '파시즘' 관련서가 물꼬를 텄다. 이와 함께 가부장제에 대한 공격(《가족주의는 야만이다》(이득재, 소나무)), 여성 억압 담론에 대한 비판(《맛장뜨는 여자들》(권명아, 소명출판))과 함께 여성의 주체적 복권(《여성노동자운동사(전2권)》(강인순 외))이 모색됐고 여성의 몸에 새겨진 이데올로기를 폭로한 작업(《여성의 몸, 어떻게 읽을 것인가?》(케티 콘보이 외, 조애리 외, 이상 환울))도 치열했다. 그러자 《남성의 역사》(토마스 퀴네 외, 조경식 외, 솔)가 출간돼 남성도 가부장제의 피해자라고 남성성을 타자화시켰다.

학계간 소통도 그 맥을 이어갔다. 특히 과학과 문학(《이런, 이게 바로 나야(전2권)》(더글러스 호프스태터, 김동광)), 과학과 종교(《카오스와 불교》(김용운, 이상 사이언스북스)) 등 과학자들이 주체가 됐다. 대중과 현실 속에 학문의 등지를 틀고자 한 학자들의 모

색은 동양철학자들의 대중적 저술(《왜 동양철학인가》(한형조, 문학동네))에서도 확인됐다.

번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다. 눈부신 동서양 고전들이 목마르게 기다리던 독자들 품에 안겼다. 《주자어류》(주자, 허탁 외, 소나무) 등의 동양고전들,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에 관하여》(유원기, 궁리), 들뢰즈·가타리의 《천개의 고원》(김재인, 새물결) 등이 우리말로 옮겨졌다. 반면 알튀세르의 말기 저작 《마키아벨리의 가면》(김정한 외, 이후) 등은 불철저한 번역과 오역으로 곤욕을 치렀다.

**현실의 배후 짚어주는 책들 인기 끌며**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올해의 다작가는 강준만 교수다. 《이문열과 김용옥(전2권)》(이상 인물과사상사) 등 총 10종 13권을 펴냈다. 2위는 노엄 촘스키로 미국 비판의 선봉장을 자임하며 《실패한 교육과 거짓말》(강주현, 아침이슬) 등 공저를 포함해 7권을 펴냈고, 3위는 비록 고인이지만 다산 정약용이 차지했다. 《아방강역고》(정해림, 현대실학사) 등 6권이 초역·재번역됐다. 화제를 불러일으킨 저자들도 있었다. 《도올 논어》(김용옥, 통나무)를 비판한 책들이 대표적이다. '아줌마 저자' 이경숙은 《노자를 웃긴 남자》(자인)에서 김용옥의 《노자》 해석이 엉터리라고 공박했고, 이기동 교수 등이 도올의 표절을 문제삼으며 협공했다.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가 황국사관을 담고 있다고 분석한 김환희씨(《국화꽃의 비밀》(민음사)), 마르크스의 박사논문을 번역하고, 니체해설서를 저술한 고병권씨도 신인급 저자로 주목받았다.

베스트셀러는 화제성 책들이 주류를 이룬 가운데 역사와 신화관련 대중서가 인기를 모았다. 《이윤기의 그리스로마 신화》(이윤기, 웅진출판)가 1년 내내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내려오지 않았고 《한국사는 없다》(이희근, 다우) 같이 기존역사관을 비판한 책들이 많이 읽혔다. 정조시대에 대한 학계의 새로운 조명(《정조대왕의 꿈》(유봉학, 신구문화사) 등)도 대중들의 공감을 얻었다. 자폭테러 사건 이후에는 《이슬람》(이희수 외, 청아출판사) 등 이슬람 관련서가 꾸준히 인기를 누렸다. —강성민기자